

청풍호 자드락길의 문화자원과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 청풍호 자드락길 제6코스 괴곡성벽길을 중심으로 -

안상경*

-
- I. ‘길’의 의미 변화와 ‘관광’의 인문학적 해석
 - II. ‘청풍호 자드락길’의 문화자원과 원형 가치
 - III. ‘청풍호 자드락길’의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

I. ‘길’의 의미 변화와 ‘관광’의 인문학적 해석

‘길’은 땅 위의 물리적 공간이라는 1차적인 의미 이외 다른 상징들도 내포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길’의 사전적 의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①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도록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
- ② 물 위나 공중에서 일정하게 다니는 곳

* 충북대학교 기초교육원 초빙교수

- ③ 걷거나 탈것을 타고 어느 곳으로 가는 노정(路程)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의 삶이나 사회적·역사적 발전 따위가 전개되는 과정
- ⑤ 사람이 삶을 살아가거나 사회가 발전해 가는 데에 지향하는 방향, 지침, 목적이나 전문 분야
- ⑥ 어떤 자격이나 신분으로서 주어진 도리나 임무
- ⑦ 방법이나 수단
- ⑧ 어떤 행동이 끝나자마자 즉시
- ⑨ 어떠한 일을 하는 도중이나 기회
- ⑩ ‘과정’, ‘도중’, ‘중간’의 뜻을 나타내는 말

우선 길은 ①과 같이 ‘사람이나 동물 또는 자동차 따위가 지나갈 수 있도록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을 의미한다. 길의 어원인 “골(kol)-/갑(kap)-”을 보더라도 길은 흙이나 땅과 깊은 관련이 있다.¹⁾ 또한 길은 ②와 같이 물 위나 공중의 공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뱃길’, ‘하늘길’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간적 의미 이외, 길은 ③과 같이 ‘노정(路程)’을 의미하는가 하면, ④~⑩과 같이 ‘과정’, ‘분야’, ‘도리나 임무’, ‘방법이나 수단’, ‘기회’ 등의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은유로서 ‘인생’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길은, 인류가 450만 년 전부터 걷기 시작했다고 하니, 아무래도 ‘걷기’와 관련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근간에 이르러 과학, 교통, 통신 등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애써 도보로 움직여야 할 일들이 줄어들고 있다.²⁾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최근에는

1) 길은 알타이 조어에서 분리, 분반(半分) 등을 뜻하는 어근 ‘골(kol)-/갑(kap)-’이 ‘갈(分)-’로 변형되고, 다시 ‘가르다[分]/길다[長]/길[道]’ 등으로 분화되며, ‘길’로 정착되었다. 어형은 ‘골-/갑->갈-/길->가르다/길다/길’과 같은 과정을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 길은 흙이나 땅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원도 흙과 땅, 즉 토지에 관한 것과 관련이 있다(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편, 1992, 『한국문화상징사전』, 두산동아, 106쪽).

2) 조지프 A. 아마토, 김승욱 역, 2006, 『걷기, 인간과 세상의 대화』, 작가정신, 448~461쪽.

‘일상의 걷기’에서 ‘문화관광의 걷기’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거주지의 길’과 ‘걷기의 길’을 달리 인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국민소득이 5천 달러에 이르면 운동 부족 현상이 전 사회의 문제로 대두된다고 한다. 반면 국민소득이 1만 달러에 이르면 걷기가 전 사회의 열풍으로 대두된다고 한다. ‘걷기’를 신체와 정신의 한 치유 방식으로 새로이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 색다른 길, 의미 있는 길을 찾아 걷는 열풍이 일고 있다. 걷기가 ‘일상의 걷기’가 아니라 ‘문화관광의 걷기’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삼성경제연구소는 “2009년 10대 히트상품”의 하나로 ‘올레길’, ‘둘레길’, ‘고샅길’, ‘자드락길’ 등을 걷는 ‘도보체험관광’을 선정했다. 뿐만 아니라 ‘신라의 달밤 165리 걷기대회’, ‘서울국제걷기대회’, ‘오대산 천년의 숲 옛길 따라 걷기대회’ 등 길을 축제콘텐츠 및 행사, 대회로 개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런데 엄격한 의미에서 ‘문화관광의 걷기’는 도보체험관광이나 각종 행사, 대회의 걷기와 다른 개념이다. ‘문화관광의 걷기’는 ‘관광(觀光)’의 어원으로부터 그 개념을 추적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관광을 흔히 “tour”로 인식하고 있지만, 관광은 원래 “국가[세상]의 빛남을 본다.”라는 뜻의 “觀國之光”³⁾에서 비롯된 말이다. 그리고 여기서 “빛”은 무엇이든 간에 눈[目]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정신[心]과 관련한 것이다. “국가[세상]의 빛남”이라는 것을 “天文으로써 시절이 변하는 것을 살피고, 人文으로써 천하를 감화시킨다.”⁴⁾라는 구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천문으로 시절이 변하는 것을 살핀다는 것은 문화의 발전 여부를 살핀다는 말이며, 인문으로 천하를 감화시킨다는 것은 도덕의 발전 여부를 살핀다는 말이다.

그리고 후대의 자료로서 “日月星辰은 하늘의 빛남이요, 山川草木은 땅의 빛남이요, 詩書禮樂은 사람의 빛남이다. 그러한 즉 하늘은 氣로써 행해지고, 땅은 形으로써 행해지며, 사람은 道로써 행해진다.”⁵⁾라는

3)『周易』上經, 坤下 巽下, 觀. “觀國之光 利用賓于王.”

4)『周易』上經, 離下 艮上, 賁. “觀乎天文 以察時變 觀乎人文 以下成天下.”

구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대와 달리 천문과 인문 이외 지문(地文)을 언급하고 있는데, 종래 천문의 개념에서 지문을 분리하여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천문, 지문, 인문이 빛나기 위한 단서를 분명히 달고 있다. 즉 천문과 지문은 일월성신과 산천초목의 기운과 형태에 의해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것이며, 인문은 시서예악을 통해 인간 세상의 도덕으로 빛나는 것이다.

이처럼 관광은 문화의 밝음, 즉 인문 여부를 살펴본다는 의미이다.⁶⁾ 따라서 ‘문화관광의 걷기’는 해당지역의 천문, 지문, 인문을 바라보며 오감으로 체득하는 걷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문화관광의 걷기’를 위해서는, 다시 말해 관광객이 어느 길을 걷는 것과 다른 어떤 체득을 위해서는 그 길만의 독자적인 풍경[이미지]을 형상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라는 관광객의 질문에 답을 제시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길의 독자적인 풍경[이미지] 형상화 방안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천문, 지문, 인문을 활용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해 실현이 가능하다.

그런데 천문(天文: 우주와 천체의 온갖 현상과 그 법칙성)과 지문(地文: 대지의 온갖 모양)은 자체로서 독자적인 풍경[이미지]을 형상화할 따름이다. 따라서 지역의 고유한 인문을 바탕으로, 가령 ‘길의 역사, 민속, 인물, 지명, 전설’ 등을 기반으로 한 관광스토리텔링 창출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관광객은 관광스토리텔링을 통해 개별 체험을 함으로써 어떤 무형의 풍경[이미지]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러한 풍경[이미지]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공간에서 대량으로 복제된다. 기존의 서사(narrative)에서 벗어나 수용자의 참여적 창조가 가능한 관광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콘텐츠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관광객은 대량 복제된 사진 정보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고유한 관광스토리를 체험한다, 이러한 체험들이 사회적 의식으로 집적될 때, 길의 독자

5) 『三峰集』 卷之二, 陶隱文集序. “日月星辰 天之文也 山川草木 地之文也 詩書禮樂 人之文也 然天以氣 地以形 而人則以道 故曰文者 載道之器.”

6) 안상경, 2009, 「진상약재의 문화자원화와 문화권역」,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2집, 역사문화학회, 325~326쪽.

적인 풍경[이미지]이 비로소 구체적으로 형상화된다고 할 수 있다.

II. ‘청풍호 자드락길’의 문화자원과 원형 가치

각 지역마다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유·무형의 존재 양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것들은 대체로 정보나 지식의 형태로 홍보·교육되어 왔다. 하지만 근간에 이르러, 지역의 문화유산이 문화자원의 측면에서 문화관광의 테마로 새로이 조명되고 있다.⁷⁾ 결과 현실에서는 어떤 텍스트보다 문화관광을 통해 지역의 문화유산을 더욱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다. ‘문화유산이 관광자원으로 가공·처리·유통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을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의 문화유산이 관광자원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해당 문화유산의 내적 요소는 물론 그것을 둘러싼 외적 요소까지 매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⁸⁾ 일종의 문화관광 인프라로서 매력의 요건도 갖

7) ‘문화자원’의 의미를 ‘문화재의 범주’로써 설명할 수도 있다. 문화재의 범주는 크게 ‘문화재’, ‘문화유산’, ‘문화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문화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이미 지정된 문화유산을 의미한다. 이는 협의의 문화재로서 대상물이 갖는 희소성과 보존가치에 판단의 중점을 두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유·무형의 민족적 자산이다. 둘째, ‘문화유산’은 문화재의 외연을 둘러싼 민족자산을 의미한다. 문화유산은 과거로부터 전승되고 있는 유·무형의 민족자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보호 관리되고 있거나 계승발전시켜야 할 잠재적 문화재이다. 셋째, ‘문화자원’은 문화유산의 외연을 둘러싼 민족자산을 의미한다. 문화자원은 과거로부터 전승되고 있는 유·무형의 민족자산으로 아직 문화적 가치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문화유산 내지 문화재로서 잠재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문화자원은 문화재의 가장 큰 범주로서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포함한 일체 문화자원의 총체를 일컫는다(심승구, 2006, 『문화재 활용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연구』, 2006년 문화재청 학술연구용역, 문화재청, 30쪽).

8) 이때 ‘매력’은 “Fascination”이나 “Charm”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의미의 매력이 아니라, ‘문화관광의 매력’을 의미한다. 이에 Gunn은 문화관광의

추고 있어야 한다.⁹⁾ 문화관광의 매력 요건을 바탕으로, 그것을 관광자원과 연계하면 ‘자연적 매력’, ‘유형적 매력’, ‘문화적 매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연적 매력은 산천, 기후, 태양, 해변, 폭포, 계곡, 동굴 등 자연·환경적 속성으로부터 비롯되는 매력이다. 유형적 매력은 숙박시설, 관광상품, 쇼핑시설, 스포츠시설, 향토음식, 교통 등 제반 인프라로부터 비롯되는 매력이다. 문화적 매력은 건축양식, 민속문화, 예술, 음악, 언어 등 인문·사회적 속성으로부터 비롯되는 매력이다. 관광지는 자연적 매력, 문화적 매력, 유형적 매력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이상의 가치 있는 매력을 갖춘 공간이어야 한다.¹⁰⁾

이러한 논리를 전제로, 청풍호 자르락길의 자연적 매력, 유형적 매력, 문화적 매력을 ‘대청호 5백리길’과 비교를 통해 드러내면 다음과 같다.

매력을 “자성적인 것으로 사람을 즐겁게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정의했다. Leiper는 “유인(Draw), 자력(Magnetism),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Gravitational influence), 유인요인(Pull factor)으로 그 자체가 행태에 영향을 주는 힘”이라고 정의했다. 박석희는 “어떤 사물이나 경험에 대해 의식적 충동이나 선호를 가지고 즐거움이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이라고 정의했다(한승엽 외, 2007, 『관광지 매력을 바탕으로 한 관광객 시장세분화 연구: 문화관광축제가 개최되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제21집, 한국관광연구학회, 161~162쪽).

9) 한국관광연구원(1999, 『한국의 관광도시 육성방안』)은 관광지 육성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면서 문화관광의 매력 요건으로 ‘도시의 매력성(도시 이미지, 문화 및 위락시설, 관광지, 관광자원 등)’과 ‘도시가 제공하는 경험(이벤트 및 컨벤션, 여행상품, 쇼핑상품, 향토음식 등)’을 제시했다. 문화관광부(1999, 『7대 문화관광권 진흥방안』)는 문화관광 거점지역 개발을 위한 선정 지표를 설정하면서 매력적인 문화관광 거점지역 요건으로 ‘접근성’, ‘시장성’, ‘관광자원’, ‘수용태세’, ‘정책적 지원’ 등을 제시했다. 한국관광공사(2004, 『관광명소 육성계획 수립』)는 통합적 관광마케팅 측면에서 관광명소의 요건으로 ‘자원성’, ‘시장성’, ‘수용성’, ‘발전기여도’, ‘참여도’ 등을 제시했다. 인천관광공사(2007, 『재미있는 인천의 문화재 기행』)는 인천시내 문화재의 관광자원적 가치를 평가하면서 관광매력의 요건으로 ‘문화재의 문화재적 가치’, ‘스토리텔링적 가치’, ‘체험가치’, ‘수용가치’ 등을 제시했다.

10) 박석희, 2000, 『신관광자원론』, 일신사, 38~40쪽.

<표1> 자연적 매력: 수계, 경관

	대청호 5백리길	청풍호 자드락길
수계	금강 수계, 문의면과 옥천군 중심	남한강 수계, 청풍면 중심
구간	21개구간, 마을 단위로 전체 249,5km	7개 구간, 경관 단위로 전체 61.7km
형태	대부분 일방의 길(신탄진과 대전 간 로하스길, 안남 둔주봉 둘레길은 원형)	1~7번 코스가 모두 유기적으로 연계, 배길 이용
산세	대청호 주변 가장 높은 산은 옥천군 군북면 환산(고리산; 597m)	1000m 급 고산준봉, 월악산, 금수산 등이 호수를 에둘러 자리함
시야	야산을 따라 참나무, 소나무 류의 잡목 사이로 난 길이 많아 시야 협소, 그러나 아기자기한 산세와 물이 어우러져 평화로운 인상	청풍호를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 내륙호수로서 가장 빼어난 경관, 그러나 6번, 7번길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협한 길

<표2> 유형적 매력 1: 문화재단지, 문화유적

	대청호 5백리길	청풍호 자드락길
단지 조성	문의문화재단지: 민가 5동, 관아건물 1동, 그러나 문산관(文山館) 이외 인위적 재현에 불과, 문화재적 가치 상대적으로 낮음	청풍문화재단지: 보물급 청풍한벽루(淸風寒碧樓), 도지정문화재급 청풍응청각(淸風凝淸閣), 청풍망월산성(淸風望月山城) 등 문화재적 가치 매우 높음
문화 유적	양성산성(養成山城), 가호리 고인돌, 현암사(신증동국여지승람에 “견불사”로 기록), 월리사(조선시대 창건 추정) 등	보물급 문화유적 다수, 정방사(신라 의상 창건, 천년고찰), 무암사(창건 연대 미상, 영조 16년인 1740 중창) 등

<표3> 유형적 매력 2: 연계 관광

	대청호 5백리길	청풍호 자드락길
관광 명소	청남대(靑南臺), 대청호미술관	청풍호관광모노레일, 씨엔씨홀스 팜, 청풍호활공장, 청풍랜드, 청 풍호유람선 등 관광 인프라 구축
축제 행사	대청호국제환경미술제(아홉용축 제), 문의용신제(청원문화제 개 막행사), 문의문화재단지-정월대 보름연날리기대회 등	청풍호벚꽃축제, 금수산전국산악 마라톤대회, 제천국제영화음악제, 제천의병제, 제천한방바이오박람 회 등

<표4> 문화적 매력: 인물

	대청호 5백리길	청풍호 자드락길
삼국 조선	-	우륵, 이황, 이지함, 권상하, 권섭 등과 직간접적 으로 관계. 청풍김씨 문중에서는 상신(相臣: 영 의정, 좌의정, 우의정) 8명, 대제학(大提學: 홍문 관, 예문관의 정2품 벼슬) 3명, 왕비 2명 배출

청풍호를 에두르고 있는 월악산, 금수산 등 크고 높은 준봉 및 옥순봉, 구담봉, 비봉산 등 기암절경이 청풍명월의 고유한 풍경[이미지]을 생성하고 있다. 인근의 지명도 봉양읍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백운면, 송학면과 같이 양(陽), 풍(風), 수(水), 산(山), 운(雲), 송(松) 등 자연·지리적 특수성에 기인하고 있다. 비교하건대 옥천군의 안내면, 안남면, 군서면, 군북면, 청원군의 북일면, 북이면, 남일면, 남이면, 보은군 속리산면, 산외면 등과 확연히 변별된다고 할 수 있다. 근간에는 이러한 특성에 기반을 두고, ‘화전, 약초 재배’라는 친자연적인 이미지 메이킹에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일대 권역은 권상하(權尙夏: 1641~1721)의 한수재(寒水齋)와

황강학맥(黃岡學脈), 충북가락 청풍체(淸風體), 조선팔경 유람문화의 중심지로서 기능했다. 예컨대 김득신(金得臣: 1604~168)이 청풍명월의 빼어난 장관을 노래했는가 하면, 당대 문인들이 청풍에 모여 문학을 강론하고, 또 흥에 겨워 어우러진 면면을 작품으로 남겨놓기도 했다. 청풍명월은 많은 사람들이 문학을 향유하고 자연을 느끼는 일종의 ‘문학마을’이었던 셈이다. 산수를 좋아하는 자체가 어질고 올곧은 마음씨를 표상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중환(李重煥: 1690~1752)은 청풍명월의 ‘바람’과 ‘달’에 비유하여 지역성을 “온후, 명랑, 안일, 평온”으로 평하기도 했는데, 곧 ‘충청도 양반’의 또 다른 정서라고 할 수 있다.

Ⅲ. ‘청풍호 자드락길’의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제6코스 괴곡성벽길’을 중심으로

청풍호 자드락길의 제6코스는 옥순봉쉼터 - 괴곡리 - 다불암 - 고수골로 이어지는 9.9km 구간이다.



<그림1> 괴곡성벽길 안내도



<그림2> 사진찍기좋은명소 - 옥순대교

괴곡성벽길은 ‘청풍호 자드락길’ 중 가장 아름다운 풍광을 간직한 길로 평가받고 있다. 500m 고지에 불과하지만 두무산 형제바위(다불암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서 동쪽으로 소백산, 서쪽으로 월악산, 남쪽으로 도락산, 북쪽으로 금수산을 모두 조망할 수 있다. 전체 구간이 완만한 경사로 뻗어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적합하다. 다불암 주지 역석 스님 및 다불리 이장 심상원(백봉 산마루 주막 경영)의 제보에 따르면, 2013년부터 주말에는 평균 100~200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간다고 한다.

1.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활성화

문화관광 활성화를 기함에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명제는 늘 전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원론적인 측면에서 기반시설 확충이 아니라, 관광객들의 실질적 요구에 적극 반응하는 측면에서 기반시설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3> 청풍호 자드락길 안내도



<그림4> 다불암 -
백봉산마루주막 길



<그림5> 옥순대교 - 지곡나루터
왕복 배편

안내도는 각 구간별 위치와 거리를 보여줌과 동시에 걷기를 유도하는 것인 만큼 찾길과 인도의 구분 표시가 필요하다. 관광객들이 구체적인 걷기 일정과 코스를 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야간 산행이나 일출을 보기 위한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하여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가로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주말에는 백봉산마루주막에 100여 명 이상의 관광객이 들러 식사를 하지만 식수가 부족해 곤혹을 치른다. 관정을 통해 식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봄, 가을만이라도 옥순대교↔지곡나루터의 선박을 증편할 필요가 있다.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은 대부분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숙박 시설을 찾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당일 코스를 선호한다. 가령 충청도양반 체험, 구체적으로 청풍 문화재단 지 내 충청도양반 체험을 위한 숙박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쏘가리 이외 청풍의 토산품으로서 고추, 마늘, 땅콩, 고구마 등을 활용한 향토음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무형문화자원 관광스토리텔링을 통한 활성화

1) 무형문화자원의 전승 양상

(1) 두무산공원(다불암 ↔ 형제바위, 1시간 소요)의 무형문화자원



<그림6> 두무산 정상 전경 <그림7> 두무산 - 두무산공원



<그림8> 화필봉, 다불암 칠성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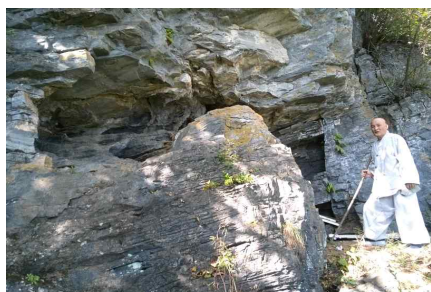
‘두무산’이라는 지명은 “중국인 두충(당나라 때 도인, 미상)이 이곳에 들렀다가 풍광에 매료되어 춤을 추었다.”라는 데서 유래했다. 비록 화소(話素)만 남아 있지만, 지명전설(地名傳說)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두무산공원’은 다불암 주지 역석 스님(1952년, 충북 제천시 수산면 출생)이 6년 전부터 조성한 공원으로 전체 9,000평 규모이다. ‘화필봉’은 다불암 산령각[산신각] 위편에 위치하고 있는 봉우리로, 월전 장우성(1912~2005) 화백의 조모 묘소가 있으며, 토정 이지함의 발길을 확인할 수 있는 풍수전설(風水傳說)이 전승되고 있다.¹¹⁾ 화필봉을 달리 ‘칠성바위’라고도 하는데, 역석 스님의 조모가 이곳에서 손자 점지를 목적으로 3년 간 치성을 드렸다고 한다.



<그림9> 형제바위



<그림10> 두무산 산신 공깃돌



<그림11> 호랑이굴

11) 토정 이지함(李之菡: 1517~1578)과 청풍의 관계를 추적, ‘풍수’를 통해 청풍면이 길지라는 사실을 관광스토리텔링의 주요 화소로 상정할 수도 있다.

‘두무산 산신 공깃돌’은 커다란 공깃돌 형상으로, 두무산의 산신이 공기놀이를 하다가 공깃돌을 흘려놓았다는 암석전설(巖石傳說)의 증거물이기도 하다. ‘호랑이굴’은 호랑이가 머물렀다고 하는 굴인데, 근간의 일화(逸話)가 전설로 변이되는 데 중요한 증거물로 기능하고 있다. 50여 년 전, 다불리 마을 아래 짝개바위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한 의원(고 김중화)이 지팡이를 내리치며 호랑이를 쫓으려 하자, 호랑이가 달려들어 의원의 어깨를 핏고고 사라졌다. 그런데 의원이 마을 입구에 도착하니,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을 대치하다가 새벽이 되어 서야 호랑이가 사라졌다. 이후 3일간 의원의 집 앞에서 호랑이가 으르렁거렸다. 의원은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목침을 두드려 호랑이를 쫓았다. 그 호랑이가 머물던 곳을 ‘호랑이굴’이라고 불렀다.

(2) 다불리(다불리 마을 ↔ 수물 전 옛 나루터, 1시간 소요)의 무형문화자원

지역민들은 다불리를 흔히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부른다. 다불리라는 지명은 “이곳에 들면 빼어난 경관에 취해 마음이 저절로 부처가 된다.”라는 데서 유래했다. 마을의 형상은 용의 형국으로, 백봉에서 바라보면 용의 꼬리가 청풍호에 담겨 있고, 용의 등이 탑제당을 스치고 있다. 즉 용이 탑을 등에 업고 나는 형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95년을 전후하여 단절되었지만, 당시에는 제관(이장)이 제장에서 3일간 근신하며 정성스레 탑제(塔祭)를 올렸다. 또한 탑제당 위편에 산신당(山神堂), 다불전을 따라 옛 나루터 편에 서낭당(城隍堂)이 존재했다.

2) 무형문화자원의 관광스토리텔링 창출

청풍호의 자연·지리적 특성, 인물·정서적 특성을 관광객이 이해하고, 나아가 자기동일화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관광스토리텔링을 창출한다. 예컨대 문인들이 이곳에 들러 자연을 감상하고 노래했다는 사실을 관광스토리텔링으로써 전달하고, 관광객들도 저마다 이곳에 들러

자연을 감상하고 그것을 디지털 매체로 재화하여 전달한다. 그것들의 집합이 “자연치유도시 제천으로 떠나는 힐링여행”이라는 콘셉트와 연계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각 구간별로 유·무형의 문화자원을 발굴·복원하고, 관광스토리텔링을 위한 학제간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구간별로 그 문화적 특수성에 주목하여 콘셉트를 설정한다. 현재의 구간별 명칭을 살리되, 새로운 부재를 통해 새로운 콘셉트를 전달한다. 예컨대 “하늘과 맞닿아 있는 길”, “마음이 저절로 부처가 되는 길” 등을 부재로 사용할 만하다. 나아가 “신과 인간이 공존하는 성스러운 길” 등의 부재를 통해 옛 사람들의 발복 터마다 개인사 발복을 유도한다. 산신당, 서낭당, 탑(돌탑)을 복원할 필요가 있는데, 마을신앙으로서 인위적인 계승이 아니라 신과 인간이 공존하는 성스러운 공간임을 관광객에게 주지하려는 데 목적을 둔 계승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객들은 7개 구간별 콘셉트를 참고하여 코스를 선정할 것이다.

‘길’을 걷는다는 것은 생태관광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표지판도 가능한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한다. 문자 위주의 전달을 지양하며, 몰입형 내러티브를 지향한다. 웹사이트 상에서 평면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길을 직접 걷고 체험하듯 실감형 정보 제공에 역량을 발휘한다. 지역민이자 길-해설가에 의한 전달을 통해 그 문화 자원이 담고 있는 고유한 이야기와 관광객의 삶이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논문접수: 2014. 10. 20, 심사시작: 2014. 11. 5, 심사완료: 2014. 11. 25]

주제어 : 걷기, 청풍호 자드락길, 문화자원, 문화관광, 문화관광스토리텔링

【참고문헌】

- 『周易』 『三峰集』 『擇里志』
문화관광부, 1999, 『7대 문화관광권 진흥방안』.
박석희, 2000, 『신관광자원론』, 일신사.
심승구, 2006, 『문화재 활용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연구』, 2006년 문화재청 학술연구용역, 문화재청.
안상경, 2009, 「진상약재의 문화자원화와 문화권역」,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2집, 역사문화학회.
인천관광공사, 2007, 『재미있는 인천의 문화재 기행』.
조지프 A. 아마토, 김승욱 역, 2006, 『걸기, 인간과 세상의 대화』, 작가정신.
한국관광공사, 2004, 『관광명소 육성계획 수립』.
한국관광연구원, 1999, 『한국의 관광도시 육성방안』.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위원회 편, 1992, 『한국문화상징사전』, 두산동아.
한승엽 외, 2007, 「관광지 매력을 바탕으로 한 관광객 시장세분화 연구」, 『관광연구저널』 제21집, 한국관광연구학회.

<Abstract>

Cheongpungho Jadeurak-Road of cultural resources and cultural tourism Revitalization

An, Sang-gyeong

Cheongpungho Jadeurak-Road Nature and geography of the cheongpungho to activate cultural tourism, people, tourists understand the emotional nature, and further need to develop story-telling tour has to be taken into account so that self-identification. Restoration, excavation of the tangible and intangible cultural resources in each region, and there is a need to conduct interdisciplinary projects for tourism storytelling. Attention to set the interval for each concept in the cultural specificity. Salridoe the current interval by name, and delivers a new concept with a new member. Sansindang, it would be necessary to restore the Seonangdang, as well as the old faith anthropogenic succession can be called God and humans co-exist to succeed is to put the sacred space that purpose notify to the tourists. It is a walk through the 'Road' Because of his personality signs of ecotourism as nature-friendly as possible and composition. Flat out at the level to pass the story on the website, a walk-hand experience as to demonstrate the ability to provide Tangible information. While local residents derive a unique life story and the culture of the tourists that contains the resource through the delivery by the commentators to interact.

Key words : Walking, cheongpungho jadeurak-Road, cultural resources, cultural tourism, cultural tourism storytelling.